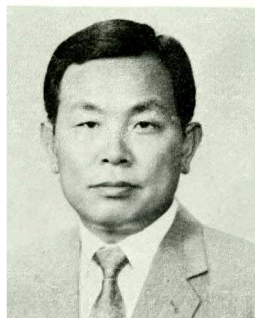


## 創刊辭



우리나라가 1978/79년 남빙양 크릴 어획과 해양조사를 시작함으로써 南極에 관심을 보인지도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1986년 11월에는 南極條約에 가입했으며, 1988년 2월17일 서남극 남쉐틀란드군도 킹조지섬 바튼반도 해안에 남극 과학 연구기지인 世宗基地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89년 10월19일 불란서 파리에서 열린 제9차 南極條約特別協議當事國會議에서는 세계에서 23번째로 南極條約協議當事國의 자격을 획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南極에 관심을 표한 이래 研究基地를 짓고, 과학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눈에 보이는 증거인 것입니다.

어느 다른 분야의 연구도 그렇겠지만, 남극연구도 연구자체가 어렵고 힘들지만, 연구내용과 결과를 관계 기관과 참여연구원을 비롯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남극연구를 시작한 단계이기에 더욱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南極에 대한 관심은 남극을 研究하는 과학자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 정부부처, 나아가서 국민 모두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벌써 제3차 대한민국 남극과학연구단의 월동조사대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이때에, 남극연구활동과 남극관계 소식을 전할 南極專門誌 하나 없다는 것은, 과학연구기지를 갖고 있고 南極條約協議當事國의 자격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는 너무나 무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최초의 南極을 포함한 極地專門誌인 “韓國極地研究”의 創刊의 깊은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韓國極地研究”의 創刊을 진심으로 기리고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 6월 1일

韓國海洋研究所

소장 朴炳權